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155-192
<https://doi.org/10.29212/mh.2025..134.15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10~20년대 북간도 하마탕(蛤蟆塘)의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

김정훈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원

- 목 차
1. 서론
 2. 지리적 입지와 한인의 이주
 - 가. 지형과 지리
 - 나. 한인의 이주와 인구
 3. 독립운동 근거지로서의 적절성
 - 가. 지정학적 입지
 - 나.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의 기반
 4. 하마탕에서의 독립운동
 5. 결론 : 하마탕이 갖는 독립운동 근거지의 의미

초 록 하마탕은 1919년 북간도의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국민회가 설립된 곳이다. 그러나 하마탕은 단체의 중심지가 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 당시 북간도의 중심지인 용정에서 7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으로, 본부 설립지로 선정된 이유가 의문스럽다. 본

연구는 하마탕이 대한국민회의 본부가 된 배경과 이유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마탕은 1910년 한인이 처음 이주한 이후 간도침변으로 일제의 공격을 받기 전까지 10년간 북간도 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 지형적 고립으로 인해 오지로 평가되었으나, 중국 당국과 일제의 이중적 탄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좁은 입구와 열린 퇴로를 가진 ‘교토삼굴’ 지형은 독립운동 근거지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북간도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독립군이 성장하였고, 하마탕 역시 독립군 양성의 터전이 되었다. 따라서 하마탕에 대한 공간적 연구는 북간도 독립운동 및 독립군 근거지 형성의 근원을 규명하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마탕 지역 연구를 통해 대한국민회의 성립 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조직된 독립군의 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 이전을 다루며, 공간적으로는 하마탕 평야와 후하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설명한다.

한인사회와 독립운동가들이 만나 근거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하마탕 뿐만 아니라 북간도 전반의 독립운동 근거지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이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북간도 한인사회와 독립군의 형성을 조명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5. 1. 5. 심사완료일 : 2025. 2. 24. 게재확정일 : 2025. 3. 4.)

1. 서론

하마탕¹⁾은 1919년 북간도의 대표 독립운동단체 대한국민회가 설립된 곳이다. 하마탕은 당시 북간도의 중심지인 용정에서 북으로 70km이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당시에 오지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이런 오지에서 어떻게 북간도 전체를 총괄하는 대한국민회의 본부가 성립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하마탕은 사방산 일대와 인근 평야를 통칭하는 지명이다. ‘개구리 우는 연못’²⁾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답게 곳곳에 습지가 분포되어 있었다. 이곳은 청의 봉금정책이 폐지되기 이전인 18세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인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한인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곳에 언제부터 한인이 거주했는지, 어떤 한인사회가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하마탕은 1910년 처음 한인이 이주하기 시작해 간도참변으로 일제에 공격받기 전까지 10년 동안 북간도 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지형이 고립되어 있어 오지로 평가받았지만, 덕분에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중국 지방 당국과 일제의 이중적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나아가 좁은 입구와 퇴로가 열린 ‘교

1) 蛤蟆塘은 함마당, 하마탕으로 혼용하여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 발음인 하마탕으로 통일한다. 또한 하마탕의 지명에 사용되는 한자도 蛤蟆塘과 蛤蟆塘이 혼용되는데, 蛤蟆塘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하마탕의 하마(蛤蟆)는 양서류 개구리목의 총칭이며 탕(塘)은 독, 못을 나타낸다. 하마탕의 지명은 개구리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다. 습지와 늪이 많아 그곳에 개구리가 살아서 붙은 지명이라고 한다. (김호림, 『연변 100년: 역사의 비밀이 풀린다』, 글누림, 2013, 315-316.)

토삼굴'의 지형을 갖고 있어 독립운동 근거지 역할에 적합하였다.

북간도에서는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면서 한인사회에서 독립군이 나타난다. 하마탕 역시 한인 사회가 성장하며 독립군의 근거지로 자리 잡아 갔다. 따라서 하마탕에 대한 공간적 연구는 북간도 독립운동 및 독립군 근거지 형성의 근원을 규명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1920년대 하마탕에 대한 공간적 인식은 독립군의 전쟁을 지원하던 병참기지라는 인식과 북간도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주었던 대한국민회의 소재지라는 점만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식 역시 북간도 독립전쟁의 배경지로서 인식된 것일 뿐, 북간도에 산재한 독립운동 근거지라는 공간 자체를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여기에는 북간도라는 공간적 배경이 중국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려운 점과 자료의 소실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독립군 근거지 건설에 대해서는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중에서도 북간도 독립군 근거지를 다룬 연구자는 현진국⁴⁾이다. 현진국은 연구를 통해 북간도와 만주의 독립운동이 간도참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1910~20년대의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이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이 끼쳤음을 밝혔다. 하지만 현진국의 연구는 주 연구대상이 중국 공산당의

3) 국외에 건설되었던 독립운동 근거지와 한인사회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병석, “연해주에서의 민족운동과 신한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9; 윤병석,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일조각, 1990; 박민영, “국치 전후 이상설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박결순, “보재 이상설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장세윤,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만주연구』 24, 만주학회, 201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20년 독립전쟁과 사회』, 선인, 2021.

4) 현진국, “중국 연변지구 항일 근거지 연구”, 『학림』 37, 2016.

항일 유격근거지였으며, 1930년대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시간대인 1910~20년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북간도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독립군 조직, 일본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독립전쟁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립군이 형성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독립군을 지탱할 수 있는 한인사회와 종교시설, 학교, 행정조직 등 다양한 기반이 있었다. 따라서 독립운동 근거지와 독립군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급하고 지탱한 한인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춘선⁵⁾은 북간도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한인사회의 형성과 독립운동을 연관 지어 연구하였다. 북간도 한인 사회조직과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북간도 독립운동과 독립군 근거지 건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로 19세기 초 한인사회의 형성 과정부터 1920년 간도침변으로 인한 한인사회 해체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밝혀 북간도 한인사회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김춘선의 연구는 북간도 전체의 흐름은 보여주었지만, 구체적인 지역사례와 각 근거지마다의 차이점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북간도 독립운동 기지를 연구한 최홍빈⁶⁾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김태국⁷⁾은 한인사회라는 주제에 주목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지원한 한인사회의 구조에 대해 밝혀 한인사회의 발달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 독립운동 근거지를 파악한 연구도 있

5)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6) 최홍빈, “北間島獨立運動基地”, 『한국사연구』 111, 2000, 43-70.

7)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다. 김영환⁸⁾은 독립군 기지로서 봉오동에 대한 공간적 연구를 통해 봉오동이 어떻게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기능했는지에 대해 밝혔다. 봉오동 일대 한인의 소유지 현황을 통해 신한촌의 형성과 한인의 경제력에 대해 살폈고, 고려령과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지형 분석을 통해 왜 봉오동이 군사학적으로 천혜의 요새인지 논증하였다.

박민영⁹⁾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한인 마을 배달촌을 독립운동 근거지로서 연구하였다. 배달촌의 형성과 변천, 지역 독립운동을 밝혀 독립운동 근거지가 형성되는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김영환과 박민영의 연구는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독립운동 근거지를 발굴하고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 밝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마탕의 지역 연구를 통해서 대한국민회 본부가 어떻게 오지인 하마탕에 설립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풀어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인사회의 성장과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북간도 독립군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일제의 공격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1920년 간도참변 이전을, 공간적으로는 하마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이 연구를 통해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을 조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8) 김영환, “독립군 무장기지 ‘봉오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평가 -최진동·최운산 형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54, 2022.

9) 박민영, “북간주 烏雲縣의 독립운동 근거지 倂達村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2. 지리적 입지와 한인의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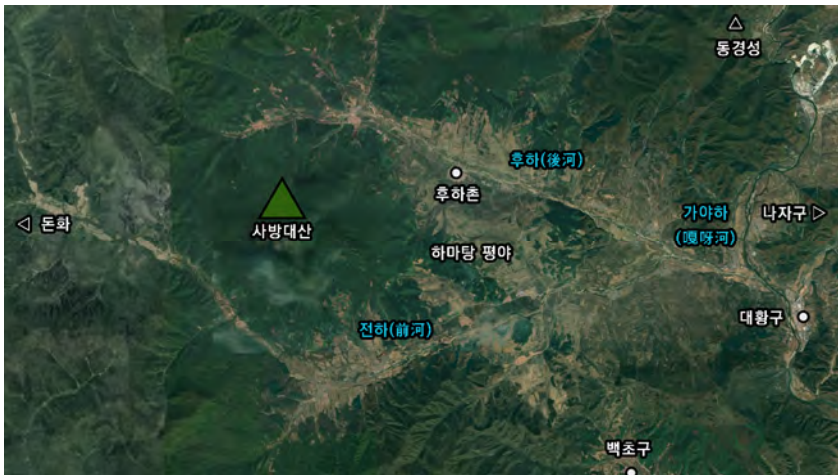
가. 지형과 지리

하마탕은 현재의 중국 지린성 조선족 자치주 왕청현(汪清縣)에 속해 있다. 북간도 개척의 시작점인 용정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다. 하마탕은 북간도의 백초구로부터 가야하(嘎呀河)를 따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한인이 많이 정착한 나자구에 서는 서쪽으로 70km에 위치해 있다. 왕청현에는 백초구(百草溝), 나자구(羅子溝), 십리평(十里坪) 등 한인의 집단 거주 지역이 산재했었다. 그에 반해 하마탕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오지로 평가받았다.



〈사진 1〉 1917~1920년 북간도 주요 도시와 도로상황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¹⁰⁾에 따르면 1910년 당시 하마탕에서 출발해 왕청현의 주요 도시인 백초구를 경유하여 북간도의 중심지 국자가에 이르는 길은 19리(74km)에 달했다.¹¹⁾ 하마탕에서 북쪽의 큰 도시로 나가는 길은 가야하를 따라 낙타뢰자(駱駝磊子)를 거쳐 영고탑(寧古塔)¹²⁾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거리는 29리(113km)에 달했고, 남쪽 훈춘(琿春)으로 가는 길은 22리(86km)에 달한다. 하마탕에서 다른 북간도 주요 도시로 나가는 길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하마탕은 왕청현에서도 매우 외진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하마탕 일대의 지형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 10)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清國國境關係』, 1910.
- 11) 일본의 1리(里)는 미터법으로는 3,927m에 해당하며, 1정(町)은 109m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마탕에서 백초구를 거쳐 국자가로 가는 길 19리는 약 74km이다. (“度量衡法”, 『官報』, 明治 24년 3월 23일, 法律 제 3호.)
- 12) 하마탕에서 영고탑(현재의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닝안)으로 가는 길은 113km로 북간도 내 다른 도시로 나가는 거리에서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물자의 공급을 위해 하마탕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길이다. 하마탕에 공급되는 물자는 대부분 영고탑에서 공급되었다.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清國國境關係』, 1910.)

하마탕은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¹³⁾ 중앙의 평야 지대를 두고 남쪽으로는 “마천령이 마치 큰 바다에 떠 있는 고래의 등이 드러나 있는 것과 같으며 산 전체가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푸른 잎과 노목으로 덮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사방태산¹⁴⁾까지 “단단하고 평평한 벽을 이루며 평야를 각각 높은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다.”¹⁵⁾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마탕 평야의 서쪽에는 사방태산이 솟아있다. 사방태산은 산中间的 골짜기로 인해 동사방대와 서사방대로 나뉜다. 동사방대산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는 점차 평탄해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을 하마탕 평야라고 하는데, 평야 전체를 삼분하여 동구, 서구, 북구라 불렀다. 각각 평야의 크기는 모두 백초구 평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서술한 것을 보아 하마탕 평야가 매우 넓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습지대가 많아 밭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밭농사를 주로 하던 중국인들에게 이곳은 황무지로 간주되었으며, 1910년 당시 하마탕 평야의 5분의 3은 황무지로 분류되었다. 하마탕에 먼저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한인에게는 3년간 무료로 소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¹⁶⁾ 하마탕에서 백초구로 이동하는 남쪽 마천령 도로는 습지가 많아 사람과 마차가 지나가기가 매우 어려워 통행하는 자가 매우 적었다.

하마탕 평야의 남쪽과 북쪽에는 사방태산에서 발원한 강폭 약 20미터의 강 두 개가 흐르고 있다. 남쪽에 있는 강은 전하(前河), 북쪽에 있는 강은 후하(後河)라고 부른다. 전하와 후하는

13) <사진 2> 참조.

14) 본 연구에서는 하마탕 분지 내에 있는 산을 현재의 지명인 사방태산(四方臺山)으로 기재하나 인용문에서는 사료에 나타난 사방태산(四方胎山)을 그대로 기재한다.

15)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清國國境關係』, 1910.

16)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清國國境關係』, 1910.

하마탕 평야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여 평야 동쪽 출입구에서 만나 가야하로 합류한다. 분지 동쪽으로 난 입구는 전하와 후하가 가야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이자 대항구를 통해 하마탕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하마탕의 지형은 외지고 고립된 곳이었다. 그러나 분지 내부에 평야가 있고 수량이 풍부하다는 점은 논농사에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하마탕에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조건이 되었다.

나. 한인의 이주와 인구

1910년대 한인이 간도로 이주한 동기에는 경제적 원인과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¹⁷⁾ 조선에서의 생활난과 세금 문제 등으로 간도로 밀려난 농민들의 이주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북간도로 먼저 이주한 친인척을 따라 이주하거나, 주 거주지는 국내에 두고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형태의 이주도 있었다.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영향력이 적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통해 조국의 광복을 이루고자 하는 이른바 “배일사상”을 가진 한인들의 이주도 있었다.¹⁸⁾ 이로 인해 1910년대부터 1930년까지 간도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조선에서 이주해온 한인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910년에 109,500명이었던 한인 인구는 1921년에는 30만 명으

17)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점령한 일본은 1912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대량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일본인들의 대규모 토지점유는 일본인 대지주를 출현케 했고, 지주 호수도 증가하였다. 이는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 감소와 소작농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작농 지위에서도 밀려난 한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고승제, 『韓國移民史研究』, 장문각, 1973, 33;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342.)

18) 조선총독부, 『國境地方視察復命書』, 1915.4, 『백산학보』9, 1970, 215-216, 재인용.

로 증가한다. 간도 내 한인과 중국인의 인구 비율 역시 70%에서 80%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국인에 비해 수적 우위를 지키고 있었다.¹⁹⁾ 또한 1910년부터 1931년까지 매년 2만 명 이상의 한인이 유입되며 인구가 증가하였다. 한인의 수가 증가하며 북간도 각지에는 한인 마을이 생겨났으며 자연스럽게 한인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²⁰⁾

한인이 이주하기 전 최초로 하마탕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중국인들은 1884년경 이미 하마탕에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출신 이주민으로 중국인 곡문(曲文)을 비롯한 10여 명이 하마탕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하마탕 개발의 시초이다. 하마탕에 한인보다 먼저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이주해 온 한인의 노동력으로 황무지와 습지를 개간할 수 있었기에 한인의 이주를 환영했으며, 한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친밀하게 대했다.²¹⁾ 1910년 함경북도에서 이주한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하마탕에도 한인 마을이 형성되었다.²²⁾ 하마탕에서 처음 생긴 한인 마을은 후하촌(後河村)이다.²³⁾ 후하촌이 생겨난 이후에도 하마탕 일대로 한인이 계속 이주해오면서 하마탕 평야 일대에 여러 한인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마탕에서 한인사회가 형성될 당시 하마탕의 지형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농사가 가능할 정도의 수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마탕뿐 아니라 간도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었다. 19세기 당시 간도에서는 수수, 콩,

19) 최홍빈, “20세기 초 중국동북지방에서의 반일민족독립운동”, 『간도사신론(上)』, 우리들의편지사, 1993, 304.

20) 국사편찬위원회, 『중국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11, 85, <표 1> 참조.

21)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淸國國境關係』, 1910.

22)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淸國國境關係』, 1910.

23) 후하촌의 이름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일(紅日)로 변경되었다. (박환, 『만주지역 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12, 476.)

조와 같은 발작물을 주로 생산했다.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이주해 온 한인들은 논농사에 도전했으나 간도는 조선의 풍토와 달라 논농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익숙하지 않은 풍토와 수온에서도 논농사를 성공해 간도개척의 문을 열었다.²⁴⁾ 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에 밭농사에 종사하던 많은 한인이 간도의 풍토에 맞춘 논농사를 배워 자신의 지역에서 농작하였다. 결국 한인이 있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논농사가 있었고, 개척지에서 논농사 가능 여부는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필수조건이었다.

북간도의 논농사는 1900년경 용정 부근 대불동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²⁵⁾ 하마탕도 1913년을 전후해 논농사에 성공했다.²⁶⁾ 하마탕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습지가 많은 지역으로 논농사를 짓기에 필수적인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하마탕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풍부한 수량으로 논농사에 성공했고, 이는 한인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1910년 당시 하마탕에는 312호가 살고 있었으며, 인구는 3,117명이었다.²⁷⁾ 그중 한인의 호수는 12호였으며 한인의 수는 남녀를 합해 84명에 불과했다. 이는 하마탕에 거주하는 중국인 대비 약 2%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인이 중국인에 비해 많은 간도 전체의 인구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시기 하마탕에서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나자구의 전체 인구는 3,916명

24) 간도 최초의 논농사는 1870년대 길림성 통화현 상전자에서 실행되었고, 그 성공이 전해지자 곧 통화현과 인접한 환인현과 류하현 등에서 한인 농민들이 논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기 시작했다. (이정문, “동북의 벼농사”, 『간도사신론(上)』, 우리들의 편지사, 1993, 101.)

25) 이정문, “동북의 벼농사”, 『간도사신론(上)』, 우리들의 편지사, 1993, 101.

26) 국사편찬위원회, 『중국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11, 87.

27) 『淸國國境關係』에서 지칭하는 ‘하마탕’은 하마탕 평야 일대의 마을들을 통칭한다. (조선총독부총무부의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淸國國境關係』, 1910. 444.)

이었는데, 이중 한인의 인구는 3,340명으로 한인 인구가 전체의 85%에 달했다.²⁸⁾ 같은 왕청현이라고 해도 나자구처럼 일찍 한인의 개척이 이루어진 곳은 이미 한인의 수가 중국인의 수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1910년 당시 하마탕은 한인이 갓 이주하기 시작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10년 이후 하마탕 한인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하마탕의 인구에 대해서는 몇몇 증언들이 남아있다. 후하촌의 한인 호수가 한때 700호에 달했다고 하는 증언²⁹⁾이 있지만, 시대가 특정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910년대의 인구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하마탕의 다른 별칭으로 500호 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증언이 언급하는 시점은 일제의 만주국 설립 이후 국내에서 만주로 집단이주가 이루어진 1930년 이후로 보여 1920년대 인구를 밝혀내는데 적합하지 않다.³⁰⁾ 그러나 증언들을 통해 하마탕의 물리적인 기반은 500호에서 700호에 달하는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하마탕에 정착한 한인은 12호에 84명이었다. 평균 1호에 7명 정도가 속해있었는데, 같은 시기 나자구의 한인 1호당 인원은 6명이었다.³¹⁾ 이를 볼

28) 조선총독부총무부외사국, “羅子溝地勢狀況報告送付ノ件”, 『淸國國境關係』, 1910.

29) 박환, 『만주지역 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12, 476.

30) 1930년대 일제의 만주 강제이주정책으로 조선에서 간도로 집단이주한 집단 구성원의 증언에 따르면 1935년 함경도에서 100세대가 하마탕 전하(前河) 북쪽에 배치되었고, 강원도에서 100세대가 전하(前河) 남쪽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하마탕의 전체 인구는 크게 변동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기술한 하마탕의 호수가 700호에 달했다는 주민의 증언은 2012년 당시 60세인 증언자의 나이와 일제에 의한 집단이주정책이 있었던 1930년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증언은 1930년대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910년부터 1920년까지 다루고 있는 본 연구와는 시간상 맞지 않는 증언이라 생각된다. 또 1938년 하마탕으로 이주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하마탕을 다른 별칭으로 500호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증언도 1930년대 이후의 하마탕 인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호림, 『연변 100년: 역사의 비밀이 풀린다』, 글누림, 2013, 316, 321.)

때 한인 1호는 대략 6~7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국민회가 조직되어 하마탕에 본부를 설치한 1920년 당시 하마탕 일대에는 최소 200호에서 최대 500호의 가구가 있었고, 약 1,2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³²⁾

1910년대 하마탕의 정확한 인구는 불분명하지만, 1910년 84명에 불과했던 하마탕의 한인 인구는 10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한인의 유입은 한인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와 학교를 건설해 한인사회의 성장을 도왔다. 이들이 교육과 종교를 통해 한인사회를 이끌고, 이를 통해 다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마탕은 10년간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북간도 독립운동 근거지로 떠오를 수 있었다.

3. 독립운동 근거지로서의 적절성

가. 지정학적 입지

하마탕이 독립운동 근거지로서 주목받은 이유는 지정학적 입지이다. 청의 봉금정책이 풀리면서 간도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는 이민 지역이었다. 청과 러시아 모두 간도와 연해주 개발을 위해 이주민을 보내던 시기적 상황과 맞물리며 하마탕의 지정학

31) 1910년 나자구의 한인 인구는 3,340명이며, 호수는 550호이다. (조선총독부총무부 외사국, “羅子溝地勢狀況報告送付ノ件”, 『清國國境關係』, 1910.)

32) 2023년 기준 홍일촌의 인구는 364호에 1,103명이다. 이 수치는 과거 하마탕의 중심도시인 후하촌 영역에 한해 집계한 것이다. 하마탕 일대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호수와 인구수는 더 늘어 날 수 있다. 그러나 현 홍일촌의 크기와 현지인 증언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汪清縣人民政府, “汪清縣教育局駐大興溝鎮紅日村2023年度鄉村振興幫扶工作計劃”, 2023.02.03.)

적 위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마탕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근처에 있어 연해주와 한인과 교류하기에 좋은 요충지였다. 하마탕의 분지 지형을 빠져나오게 되면 북쪽으로 가야하를 따라 만주로 진출할 수 있다. 또는 하마탕 분지에서 곧바로 동쪽으로 나가면 나자구로 연결되고, 여기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면 러시아 국경에 닿을 수 있었다. 남쪽으로는 가야하를 따라 훈춘을 통해 연해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마탕은 용정을 대신하는 한인의 중심지는 물론 독립운동 근거지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었다.

1910년대 북간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용정이었다. 용정은 두만강 북쪽에 있는 도시로 간도 개척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1883년 회령에서 들어온 한인들이 개척하기 시작하여, 1907년에는 100여 호 되는 큰 마을로 발전하였다. 간도 한인사회의 중심은 용정이었다고, 자연스레 간도로 이주하는 한인이 모두 거쳐 가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에서 일제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 일제는 협약에 따라 용정에 통감부 파출소를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용정에 설치된 간도일본총영사관은 파출소에서 영사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한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강화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용정뿐 아니라 국자가, 백초구, 두도구 등 북간도 주요 도시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였다. 일제는 용정을 간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총영사관과 더불어 조선은행 용정 출장소 등 주요 시설을 용정에 설치해 간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³³⁾ 용정에서 일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그러나 하마탕은 용정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70km에 떨어진 곳에 있어

3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20년 독립전쟁과 사회』, 선인, 2021, 295.

일제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활동하기에 자유로웠다. 모순되게도 접근이 어려운 오지였던 덕분에 하마탕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이곳에 1913년 구춘선이 교회를 설립하고 한인사회를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하마탕은 새로운 독립운동 거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하마탕은 러시아 국경과 가깝고 주요도로의 길목에 위치했다. 1910~20년대 북간도의 주요 도로³⁴⁾를 보면 북간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는 총 2곳이다. 훈춘에서 출발하여 바라바쉬³⁵⁾로 넘어가는 남쪽 도로와 중국 삼차구를 거쳐 국경을 넘는 북쪽 도로가 있다. 하마탕은 북쪽 도로를 이용해 연해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서간도와 연해주 북쪽 우수리스크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하마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마탕은 연해주와 관련된 인물들이 자주 방문하였다. 연해주를 무대로 활동하던 이동휘의 가족과 계봉우 등이 대표적이며 연해주 추풍에서 활동하던 홍범도는 1919년 8월 하순에는 하마탕 상촌 예수촌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기도 했다.³⁶⁾ 홍범도 부대는 하마탕에 주둔하면서 구춘선의 대한국민회를 통해 무기를 포함한 인적·물적자원을 지원받았다. 대한국민회의 지원 아래 하마탕에 주둔하던 홍범도 부대는 규모를 늘리고 단체명을 대한독립군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의 규모는 1919년 말에서 1920년 초 당시 3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무기는 소총 200여 정, 권총 30여 정이었다.³⁷⁾ 인적 자원뿐 아니라 물적 자원, 특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군수물자가 서간도로 운송되기 위해서

34) <지도자료 1> 참조.

35) Barbash, 옛 지명 몽구가이, 몽고가(蒙古街), 연해주 남부 교통의 요지로 연해주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3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20년 독립전쟁과 사회』, 선인, 2021, 115.

37) 장세운,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150-152.

는 하마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대한국민회는 하마탕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연해주에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꾸준히 인원을 파견했고, 연해주에서 구매한 무기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춘선의 자택이 있는 하마탕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하마탕 분지의 폐쇄적인 분지 형태는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의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분지 지형을 이용해 외부와 분리된 폐쇄적인 환경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마탕의 좁은 입구를 통해 외지인이 하마탕에 들어오게 되면 금방 눈에 띄게 되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피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동휘의 경우 1916년 하마탕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였다가 일제에 정보가 누설되어 형사들에게 피체될 위기가 있었는데, 하마탕에 들어온 일제 형사를 보고 구춘선의 아들 구자익과 주민 김동욱이 알려주어 일제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마탕은 산에 둘러싸여 있지만, 유사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좁은 산길이 열려있어 독립운동가들이 운신하기에 좋은 지형이었다. 분지 지형은 사방대산과 태평령, 마천령이 벽이 되어 하마탕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³⁸⁾ 분지를 둘러싼 사방산을 넘어 서쪽으로 가면 30km 거리에 돈화시가 나온다.³⁹⁾ 동쪽으로는 전강과 후강을 따라 가야하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가야하로 나아가게 되면 북쪽으로 동경성, 영고탑으로 나갈 수 있고, 동쪽으로 나아가 나자구와 러시아로 이동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는 마천령을 넘어 백초구로 바로 나아가 국자가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하마탕은 여러 방향으로 좁은 길이 열려 있어 위급 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었다. 폐쇄적인 지형을 갖고 있음에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독립운동

38) 조선총독부총무부외사국,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清國國境關係』, 1910.

39) 박환, 「만주지역 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12, 480.

가들에게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이런 점에서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을 것이다.

나.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의 기반

하마탕을 독립운동 근거지로서 기능하게 했던 것은 하마탕의 한인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인사회는 3개의 기반을 통해 유지되었다. 소학교, 교회, 그리고 한인의 조직이다.

북간도에서 기독교의 성장세는 교인의 수와 기독교 계열 학교의 수로 나타난다. 우선 교인을 살펴보면 1915년 북간도 종교인의 수는 천도교가 108호에 540명, 대종교가 165호에 825명, 천주교가 268호에 1,340명, 장로회 기독교가 429호에 2,145명으로 기독교가 압도적인 교인의 수를 보여준다.⁴⁰⁾ 또한 1911년부터 1913년까지의 종교계통 학교의 수를 살펴보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타 종교 계열 학교의 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⁴¹⁾

(표 1) 북간도 한인사회 사립학교의 종교별 분류

	1911년		1913년	
	학교	학생	학교	학생
기독교	6	162	35	1,042
천주교	5	125	4	121
대종교	0	0	3	87
기타	8	206	46	609
합계	19	493	88	1,859

*東洋拓植株式會社 編, "朝鮮人經營學校", 『間島事情』, 1918, 835.

40) 조선총독부, 『國境地方視察復命書』, 1915.4, 『백산학보』9, 1970, 226-227.

41) 『間島事情』에서 말하는 간도의 범위는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에 해당한다.(東洋拓植株式會社 編, "朝鮮人經營學校", 『間島事情』, 1918, 835.)

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1년 7월 기준 전체 19개교 중 6개 학교인 31%로 타 종교 학교보다 높다. 2년 뒤인 1913년 9월의 조사한 자료에서 기독교 계통 학교는 2년 새 35개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다른 종교의 학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기독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또 학생의 수에서도 기독교 계열 학교의 학생이 종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았다. 1911년에는 기독교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32%에 불과했지만, 1913년에는 전체의 56%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북간도에서 기독교의 성장세가 나타난 원인에는 이동휘의 포교 활동과 한인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다. 북간도에서 종교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이동휘의 교육활동은 기독교 전도와 함께 움직였고, 이동휘와 함께한 독립운동가들은 학교와 교회 건설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중 한명이 구춘선⁴²⁾이다. 일찍이 선교사 그리어슨⁴³⁾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구춘선은 간민 교육회와 간민회 모두에서 활동하였고, 북간도 교회설립에 노력하였다. 구춘선은 이동휘와 인척 관계였는데, 구춘선의 양자인 구자익의 처가 이동휘의 처조카였다.⁴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구

42) 구춘선은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으로, 1860년 1월 29일 생이다. 대한제국 군인출신으로 1897년 가족들을 데리고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구춘선은 하마탕 교회 설립 이후 왕청현 하마탕에 거주하며 민족운동과 하마탕으로 이주해 오는 독립지사들과 연대하는 일에 힘썼다. 또한 북간도에서 한인들의 단체인 간민교육회와 간민회에 참여해 하마탕 일대의 한인사회와 북간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배정현, “만주지역 대한국민회 회장 구춘선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7, 2016, 89; 민경배, “日帝下 間島에서의 韓國基督教 過激獨立運動”, 『간도사신론(上)』, 우리들의 편지사, 1993, 328.)

43) 구춘선을 기독교로 입회시킨 선교사 ‘구예선’은 이동휘와 함께 활동한 캐나다 장로 선교회 소속 로버트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 1868년 2월 15일~1965년 5월 8일)이다. 그리어슨은 이동휘와 긴밀한 관계였고, 이동휘와 구춘선은 종교와 인척으로 얽힌 관계였다.

44) 배정현, “만주지역 대한국민회회장 구춘선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7, 2016, 87.

춘선은 그리어슨과 함께 1906년 용정시 교회를 설립한다. 북간도 한인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정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력은 빠르게 커져 그곳을 시작으로 1907년에는 와룡동 교회, 1908년에는 모아산 교회, 1909년에는 명동교회를 설립하였고, 1913년에는 하마탕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하마탕 교회는 용정에 교회 건립을 주도했던 구춘선이 주도하였다. 구춘선은 1914년 간민회가 해체되자 하마탕에서 교회활동과 민족교육에 주력하였다. 하마탕 교회는 지역 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하였다.

1913년 하마탕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뒤이어 교회 소속의 소학교가 설립되었다.⁴⁵⁾ 하마탕에 소학교가 세워진 시기는 1915년으로 보인다. 북간도에서는 교회와 학교는 함께 세워졌다.⁴⁶⁾ 김약연이 건립한 명동교회와 명동학교⁴⁷⁾처럼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에서는 영신학교, 은진학교, 명신여학교 등을 세워 북간도 한인교육을 담당했다.⁴⁸⁾ 북간도에 이주해 온 독립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양을 중시하였고, 학교가 독립사상을 키우는 거점이라고 생각하여 학교 설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동휘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학교 설립에 앞장섰으며 여기에 광범위한 북간도 민중들의 지지가 이어지며 기독교계 학교는

45) 大4 李鳳雨 鄭鍾尙 間島哈蟆塘二基督教小學校設立. (국사편찬위원회, “4.3.2 過激派及不逞團”, 『해외자료 총서』 5권, 2002.)

46) 민경배, “日帝下 間島에서의 韓國基督教 過激獨立運動”, 『간도사신문(上)』, 우리의 편지사, 1993, 328.

47) 1908년 4월 27일 설립된 명동서숙은 1909년 명동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교사 정재면의 제안에 의해 명동교회를 건립하였다. 명동학교를 운영하던 김약연은 기독교학교는 중국과 일제의 간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재면의 제안에 동의하여 1909년 명동교회를 건립하였다. (독립기념관,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 활동지와 한인사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학술조사보고서, 2021, 129.)

48) 민경배, “日帝下 間島에서의 韓國基督教 過激獨立運動”, 『간도사신문(上)』, 우리의 편지사, 1993, 328.

타 종교에 비해 많은 수를 자랑했다.⁴⁹⁾

하마탕에는 간민교육회와 간민회에 참여하면서 길동기독학당을 비롯한 북간도의 교육활동에 투신했던 구춘선이 있었고, 권업회가 해체되면서 1914년 8월 이동휘의 가족과 함께 연해주에서 하마탕으로 이동해 온 계봉우도 있었다. 이들은 하마탕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소학교를 운영하였다. 1915년부터 1916년까지는 이동휘가 소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하마탕에 거주하면서 소학교 건립에 기여한 이봉우⁵⁰⁾가 있었다. 이동휘와 계봉우, 구춘선, 이봉우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고 운영된 하마탕 소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동휘가 세운 학교들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동휘가 교장으로 1911년부터 운영하였던 길동기독학당에서는 사범속성과를 통해 애국심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했다. 또한 이동휘가 나자구에서 운영한 동립무관학교는 독립군의 장교를 길러내기 위한 사관학교였다. 그곳에서 군사훈련과 함께 민족교육이 중시된 것으로 볼 때, 하마탕 소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봉우는 하마탕에서 『안중근 전』 집필을 마무리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저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상은 당시 교편을 잡고 있던 하마탕 소학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9) 東洋拓植株式會社 編, “間島私立朝鮮人學敎票”, 『間島事情』, 1918, 835~845; 박주신, “中國의 間島 韓國人에 대한 敎育政策과 韓國人의 敎育的 抵抗”, 『한국교육사학』21, 1999, 170; 김동춘, “북간도 조선민족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수용과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81, 2008, 26.

50) 이봉우는 의병장 고제량의 사위로 장인이 전사한 1907년 이후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1910년 간도국민회간도직속지회에서 활동하고, 간민교육회 산하 연구회에서 근무하였다. 이봉우가 하마탕에서 1915년 소학교를 설립했다는 기록은 확인되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언제부터 하마탕에 거주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최소 1915년부터 하마탕 지역에 왕래가 있었으며, 1919년에 하마탕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4.3.2過激派及不逞團”, 『해외자료 총서』 5권, 2002)

당시 북간도 민족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⁵¹⁾ 하마탕 소학교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사상과 이들이 활동했던 학교들이 보여주었던 교육이념을 통해 하마탕 소학교 역시 민족의식을 교육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마탕에서 교회, 소학교와 더불어 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것은 한인의 사회조직이다. 북간도의 한인은 중국과 일제의 이중적 압력 속에서 한인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한인만의 사회조직을 구성하여 한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려 했다. 나아가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하되, 북간도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간민교육회는 이러한 사상을 보여준 단체로 북간도에서 중국 지방 당국의 인준을 받은 최초의 한인 사회조직이다. 1910년에 설립된 간민교육회는 이동춘, 이봉우, 구춘선, 박찬익, 윤해 등이 주도하였다.⁵²⁾ 이들은 북간도 한인의 자치와 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1913년 북간도 한인사회의 자치기구인 간민회가 조직되면서, 간민교육회는 간민회의 선행 조직으로서 간민회 조직 후 해체되었다.⁵³⁾

간민회는 간민교육회가 사용하던 회관에 중앙총회를 설치하고

51)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221.

52) 憲機 1234호(1911.6.21.), “教育會員ノ行動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1)』, 1911.; 박결순, “北間島 墾民會 선행조직의 추이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51, 2009, 248; 간민교육회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민교육회로 개칭되는 1910년 설을 따른다.

53) 박결순, “북간도 간민회 선행조직의 추이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51, 2009, 253; 박결순은 간민교육회가 간민회 설립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보았으나 김춘선은 두 단체가 ‘二身一體’의 형태로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박결순의 이론에 따른다.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91, 주 12.)

훈춘현, 화룡현, 왕청현에 지방총회를 설치하였다.⁵⁴⁾ 그 밑으로 지회를 설치하여 한인자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하마탕이 있는 왕청현에도 간민회의 지방총회가 설치되었다. 왕청현에 설치된 간민회 지방총회장은 왕청현 하마탕에 거주하고 있던 구춘선으로 추측된다.⁵⁵⁾ 1914년 2월 구춘선은 간민회의 발기인이자 조직에서 지방총회장을 맡고 있었다.⁵⁶⁾ 또한 1914년 간민회 지회 부회장인 오병묵이 하마탕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⁵⁷⁾ 하마탕에도 간민회의 지회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마탕은 구춘선, 오병묵⁵⁸⁾ 등 주요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때 간민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인 사회조직을 기반으로 하마탕의 한인들은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이권을 지켜나갔다. 그러나 간민회는 약 1년간의 활동 후 중국의 압력에 의해 해체 되었다. 간민회 해체 이후 북간도의 한인 조직은 후속 단체 설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1918년

54) 독립신문에서는 간민회 중앙총회의 아랫 단계를 ‘지방총회’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분회(分會)’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 모두 훈춘현, 화룡현, 왕청현 3개현에 설치된 간민회 조직인점을 미루어 볼 때 분회는 일제가 간민회 지방총회를 지칭하는 이명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총회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北嶺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 1920년 1월 1일자.)

55) 왕청현을 제외한 훈춘현과 화룡현의 지방총회장의 구성은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일제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간민회 왕청현 지방총회의 회장은 구춘선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연결현 지방총회 회장: 李承源 부회장: 鄭瑞仲, 화룡현 지방총회 회장: 馬晉, 부회장: 南韋鉉 (최봉룡, “북간도 한인자치운동의 효시: 간민회의 시말과 그 성격”, 『한민족연구』7, 2009, 148.)

56)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 『汪清縣 墾民分會 落成式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部 - 在滿洲の部』(3), 1914년 2월 13일자, 270;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Ⅲ: 民族主義運動 篇』, 原書房, 1967, 423-425; 墾民分會長具春善

57) 박길순, “북간도 간민회의 해산과 추이”, 『중앙학론』30, 2009, 226.

58) 오병묵은 1906년 서천서숙 읍반에서 구자익, 김학연등과 함께 수학하였고, 훈춘을 기반으로 기독교우회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간민회가 조직되자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하마탕에 거주하였고, 간민회 해체 이후 참여한 만민계 활동 역시 하마탕에서 진행하였다. (박길순, “북간도 간민회의 해산과 추이”, 『중앙학론』 30, 2009, 226.)

동성한족생계회의 해체 이후 침체되었다. 그렇게 한인들의 구심점을 잃어가던 찰나 북간도 한인사회는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4. 하마탕에서의 독립운동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침체되어 있던 북간도 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당시 북간도에서는 인접지역인 국내, 연해주 인사들과 연계하며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1919년 1월 25일에는 국자가 소영자에서 기독교 전도대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연해주와 국내로 대표를 파견해 공동투쟁을 모의하기도 했다.⁵⁹⁾ 그러던 중 1919년 2월 국내에서 3·1운동 준비 소식이 들려오자 북간도의 지도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북간도 만세시위를 준비한다. 명동학교, 광성학교, 정동학교, 국자가 독립중학교의 학생 대표들은 연설회를 개최했다.⁶⁰⁾ 3월 7일에 국내에서 3·1운동의 소식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독립에 대한 열의와 반일 정서가 매우 높아졌다. 3월 8일 김영학, 강백규 등 북간도의 지도자들은 비밀회의를 개최하여 3월 13일 용정촌 북쪽 서전대야에서 집회할 것을 결의했다.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북간도의 상황에 놀란 일제는 중국 당국을 압박하여 한인의 결집을 방해하였으나, 3월 13일 만세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한인이 용정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왔고, 그 수는 3만 명에 달했다. 정오를 알리는 교회 종

59)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453.

60) 김정명, 『朝鮮獨立運動Ⅲ: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6-7.

소리와 함께 서전대야의 시위대는 만세시위를 전개했다.⁶¹⁾ 시위 행진이 시작되어 용정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간도총영사관으로 밀려오자 중국 지방당국 군대인 맹덕상 부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이날 시위대 17명이 맹덕상 부대의 발포로 인해 순국했다. 시위가 해산된 이후 구춘선을 비롯한 북간도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중국 군대에 의한 유혈사태에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연길 전만자에 모여 구춘선을 주축으로 조선독립기성회를 결성하여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간민회 이후 구심점이 없던 한인사회에 북간도 전체를 아우르는 한인 사회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조선독립기성회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회명이 국호와 저촉된다며 대한국민회로 바꾸어 활동하였다.⁶²⁾ 대한국민회는 본부⁶³⁾를 하마탕에 두고, 지방조직으로 기독교 교구를 기반으로 훈춘지역을 제외한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에 총회를 설치하고 아래에 지방회와 지회를 설치했다. 국민회 초기에는 5개 총회와 10개 지방회, 70여 개의 지회가 있었다.⁶⁴⁾ 이후에 훈춘현 국민회와 조직을 통합하면서 10개 지방회와 133개 지회를 가진 북간도 최대의 행정기구로 발돋움했다.⁶⁵⁾ 1920년 봄에는 본부를 연길현 지인향 의란

61) 四方子, “北壘島(二)”, 《獨立新聞》, 1920년 1월 10일자.

62) 구춘선, “國民會長告諭”, 《獨立新聞》, 1920년 1월 10일자.

63) 대한국민회 하마탕 본부 터는 당시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만 1930년대에 세운 기독교회당이 남아있다. 이 건물은 정미소 등으로 사용되다 방치되었으나, 길림성 왕청현 정부의 주도로 교회 내외부를 정비하여 현재는 홍일촌 역사관(紅日村史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일촌 역사관은 마을의 탄생과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항일투쟁을 진행한 홍일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64) 대한국민회 북부총회는 하마탕을 중심으로 가야하 일대이다. (오천석, “대한국민회를 논함”, 『역사와 세계』44, 2013, 390.)

65) 박환, 『滿洲韓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1991, 70-71.

구로 이전⁶⁶⁾하여 북간도 전체를 아우르는 한인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전역에 지회를 설치하고 한인들의 행정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는데, 이는 간민회 이후 공백이었던 북간도 전역을 아우르는 단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한국민회는 1910년대부터 북간도에서 형성된 한인들의 기독교 연락망을 기반⁶⁷⁾으로 실질적인 행정력을 갖춘 민간행정기구로 작동하였다. 북간도 전역에 설치된 지부는 국민회군 창설을 위한 징병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력이 군사력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1920년에는 북간도를 넘어 한국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민회 부회장 서상용이 구춘선에게 보내는 보고서⁶⁸⁾에 따르면 함경북도 무산군(茂山郡)에서는 대한국민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속해서 나왔으며, 해군(該郡)의 인민대표는 국민회에 직접 입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⁶⁹⁾ 각 군의 대한국민회 입회가 이어지자, 1920년 열렸던 대한국민회 지방지회대표자회의에서는 국내에 인원을 파견하여 의연금을 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파견 인원으로는 문학선을 필두로 정성삼, 양상규가 선정되었다.⁷⁰⁾ 이를 볼 때 대한국민회는 북간도를 넘어 국내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마탕은 비록 왕청현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북간

66) 김주용·박한·조재곤·한시준·한철호,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72-73;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2』, 國會圖書館, 1978, 878.

67) 조중원, “北間島 大韓國民會 研究”,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8.

68) 國會圖書館, “各地狀況에 關한 件”,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1』, 國會圖書館, 1978, 816.

69) 조선 국내를 의미한다. 자료에서는 ‘北鮮’으로 명시되어있다. (國會圖書館, “各地狀況에 關한 件”,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1』, 國會圖書館, 1978, 816.)

70) 日本陸軍省, “國外情報 : 間島不逞鮮人及 支那 官憲ノ關係”,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1921년 2월 18일자;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306.

도 한인들의 사회조직과 그 궤를 같이해왔다. 물론 그 중심에는 이동휘, 구춘선 등 민족지도자들이 함께했다. 1910~1920년 당시 하마탕에 거주하며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⁷¹⁾

〈표 2〉 하마탕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는 독립운동가

연번	이름	활동	비고
1	계봉우	하마탕 소학교 교육활동, 안중근전 등 저술활동	1916년 하마탕에서 피체
2	구자익	3.13 만세운동 참여, 대한북로독군부 군무과장	구춘선의 양자
3	구춘선	하마탕 교회 및 소학교 건립, 대한국민회 회장	
4	김선극	하마탕에서 독립군 활동, 1920년 사망 ⁷²⁾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김은식, 김백문 부친
5	오병목	간민회, 만민계, 훈춘지역 교육활동	1914~1916년 거주
6	이동휘	하마탕 소학교 교장, 선교 및 교육 활동	
7	이발	이동휘의 친부, 블라디보스토크 노인단 결성(1919)	1915~1917년 거주
8	이봉우	간민교육회, 간민회 활동, 하마탕 소학교 건립	의병장 고제량의 사위

1910년대에는 간민회와 간민교육회에 속해 왕청현 일대에서 한 인사회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였고, 1920년에는 대한국민회의 본부가 하마탕에 설치되었다. 북간도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한국민회의 본부가 하마탕에 있었기에 하마탕은 북간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71) 하마탕에 거주기록이 확인되는 독립운동가. 목록 이외에 남성일, 임병극, 홍범도 등의 독립운동가가 하마탕과 대한국민회를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나 거주지는 불분명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하마탕 상촌에 거주하던 이봉오의 경우 대한국민회 회의 장소로 집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가들과 연관관계가 확인되지만, 특별한 독립운동 관련 행적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다.

72) 리광인, 립선옥, 『항일련군의 조선족 녀전사들』, 연변인민출판사, 2009, 447-448.

대한국민회는 행정기구로서 북간도 한인사회를 통합할 뿐 아니라, 다가올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내부에 군사조직을 만들어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했다.⁷³⁾ 먼저 군무위원회를 설립하고 무장부대를 조직함과 동시에 북간도 전역에 설치된 지회에서 징병제를 실시하여 호당 18-40세의 장정을 1명씩 모집하여 대한국민회군으로 편입시켰다.⁷⁴⁾ 1920년 초 창설된 대한국민회군은 안무를 사령관으로, 최익룡을 부관으로 하고 연길현 의란구를 본부로 삼았다.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 조직과 인원은 준비되었으나, 무기만큼은 쉽게 조달할 수 없었다. 북간도에서는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 무기를 조달할 수도 없었고, 공업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국민회는 연해주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대한국민회군을 무장시키고자 했다. 당시 러시아는 소비에트 혁명 이후 내전 상태의 혼란기였어 무기 구입이 중국보다 순조로웠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다량의 무기를 소지한 체코군단이 1918년 7월부터 주둔하고 있어 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국민회는 연해주에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운반대를 파견했고, 연해주에서 구매한 무기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춘선의 자택이 있는 하마탕으로 모여 들었다.

73) 『抗日國民會軍』에서는 1914년 개미동에서 대한국민회를 설립하였고, 국민회군의 국민회는 구춘선의 대한국민회 산하가 아닌 1914년의 개미동 대한국민회에서 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회군은 구춘선의 대한국민회가 설립되기 5~6년 전 설립되어, 그 계통과 역사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자신의 논문에서 개미동에 설립된 것은 간민회 지회 조직이고, 간민회의 조직이 1919년 대한국민회로 발전해 차후에는 국민회라 통칭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경준, “安武(1883~1924)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92, 2017, 43; 국민회군편찬위원회, 『抗日國民會軍』, 1974, 200.)

74) 김춘선, “1920년대 중국 동북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8; 오천석, “대한국민회를 논함”, 『역사와 세계』 44, 2013, 402.

1920년 2월 16일 러시아에서 들어온 러시아제 총 100정이 구춘선의 집에 도착했다.⁷⁵⁾ 부회장인 서상용은 1920년 4월 러시아제 장총 50정을 하마탕 구춘선의 집으로 운반해 왔고, 왕청현 방면에서도 우마차 5대에 나누어 싣고 하마탕으로 무기를 운반해왔다.⁷⁶⁾ 또한 나자구 방면을 통해서도 우마차 13대에 달하는 무기가 하마탕으로 이송되었다.⁷⁷⁾ 이 무기들은 국민회군뿐 아니라 하마탕에 주둔하고 있던 흥범도 부대에게도 보급되었다.⁷⁸⁾ 대한국민회는 연해주에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부회장인 서상용은 1920년 7월 회장 구춘선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장총 100정을 각각 35원에 구입해 운반대가 총을 가지고 귀환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⁷⁹⁾ 이는 대한국민회가 하마탕이 연해주와 북간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무기 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비단원이었던 흥파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무기를 구매하여 해로를 통해 운반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⁸⁰⁾ 1920년 5월 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장총 50정과 탄환, 폭탄 200개, 망원경 20개를 구매한 군비단원들은 배를 이용해 무기를 운반하였는데, 그 종착지는 하마탕 구춘선의 집⁸¹⁾이었다. 1920년 7월에는 훈춘으로 파견한 이광이 1만 5천원으로 총 300정과 총 한 정당 탄환 1,200발을 구매하기로 러시아

75) 박환, 『만주지역 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12, 479.

76) 김경준, “安武(1883~1924)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92, 2017, 42.

77)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2.』, 國會圖書館, 1978, 877.

78) 〈武器購入ニ關スル件〉, 1920년 2월 18일자, 『現代史資料』 27, 국학자료원, 1984, 345.

79)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1.』, 國會圖書館, 1978, 817.

80) 흥파,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리승-흥파”, 『카자스탄 및 중앙아시아한국학소식』 4, 1993.7, 58-59; 박환, 『독립군과 무기』, 선인, 2020, 161, 재인용.

81) 2025년 현재 구춘선 자택 터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조사한 2000년대 사진에서는 빈 터로 남아있었다. 현지 증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운동장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인과 계약한다는 보고⁸²⁾가 있을 정도로 국민회는 무기 구입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국민회 산하 대한국민회군은 병력의 규모를 확대했다. 1920년 8월경 대한국민회 산하 국민회군은 약 450명, 소총은 600정을 보유한 대규모 무장부대로 발전했다.⁸³⁾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러시아에서 구입한 무기들은 하마탕으로 모여들었다. 하마탕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하마탕이 일제와 중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장소라는 것 역시 하마탕으로 독립운동가들이 향한 이유였다. 이 무기들은 하마탕을 거쳐 서간도와 만주로 운송되어 수많은 독립군의 무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하마탕은 독립운동가들이 소속 단체를 떠나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북간도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근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마탕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며 1920년 초반 독립군 연합부대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 결과로 북간도 독립군 단체들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가 1920년 2월 21일 하마탕에 마련되었다.⁸⁴⁾ 통합을 주장하던 홍범도와 남공선은 무장단체 통일을 역설하여 대부분의 단체 대표자들이 합의하였지만, 대한광복단 대표 이범윤이 북벌을 주장하고 통일에 반대하여 마찰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홍범도가 북간도 군사령관으로 군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제력은 발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는 종료되었다.⁸⁵⁾ 뒤이어 3월 8일에는 3일에 걸쳐서 제2차 대표자 회의가 하마탕 상촌 이봉오의 집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때 참석자는 홍범도, 구춘선,

82) 강덕상, 《現代史資料》 27, 국학자료원, 1984, 87.

83)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149.

84) 강덕상, 《現代史資料》 27, 국학자료원, 1984, 300-301.

85)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474.

이범윤, 김광국 등 40여 명이였다. 이 회의 역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우선 민주공화제를 지지하고 통합을 원하는 단체간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3월 25일 “군무도독부”를 결성하였다.⁸⁶⁾ 그리고 3월 30일 홍범도는 하마탕에 위치한 구춘선의 집에 방문하여 각 부대들의 연합문제를 상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20년 5월 28일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대한국민회군이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가 결성되었다.⁸⁷⁾ 독립군 부대의 통합을 이끌었던 두 인물인 구춘선과 홍범도의 주 활동무대가 하마탕이었고, 하마탕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조직에 참여⁸⁸⁾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마탕은 대한북로독군부가 결성되는 무대가 되었다.

북간도 무장단체의 연합군인 대한북로독군부는 1920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두만강을 건너 침입한 일본군과 삼둔자, 후안산, 고라둔, 봉오동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를 봉오동 전투로 부른다. 이때 일본군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후퇴하였으며,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독군부의 승리로 끝났다. 나아가 이 부대들은 청산리 전투에서도 활약하였다.

북간도에서 이룬 독립전쟁의 승리 뒤에는 대한독립군과 대한국민회군을 길러낸 독립운동 기지 하마탕의 한인사회와 독립군 단체의 연합을 끌어낸 하마탕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녹아있다.

86)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473-474.

87) 장세운,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150-156.

88) 하마탕 출신으로 대한북로독군부에서 활약한 인물은 임병극과 구자익이 있다.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下)』, 1971, 707, 759;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군전투사(上)』, 1973, 91;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287; 장세운,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156.)

5. 결론: 하마탕이 갖는 독립운동 근거지의 의미

북간도 왕청현에 위치한 하마탕은 1910년 처음 한인이 이주하기 시작해 간도 참변으로 일제의 공격을 받기 전까지 10년 동안 북간도 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 하마탕은 북간도의 주요 도시들과 거리가 멀고, 지형이 고립되어 있어 오지로 평가받았지만, 덕분에 다른 지역들과 달리 중국 지방 당국과 일제의 이중적 탄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좁은 입구와 열린 퇴로를 가진 ‘교토삼굴’의 지형을 갖추고 있어 독립운동 근거지로 적합했다.

하마탕은 분지 지형으로 내부에 평야와 강을 갖추어 한인들이 논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환경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1910년 첫 번째 한인 마을 ‘후하촌’이 형성되었다. 하마탕 한인의 중심지가 된 하마탕 교회는 1913년 처음 설립되었다. 설립자 구춘선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북간도의 다른 한인사회와 교류하며 하마탕 한인사회를 이끌었다. 또한, 오병목과 같은 독립운동가를 통해 북간도 한인 단체인 간민회와 연계하며 하마탕은 북간도 독립운동 근거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1915년에는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14년 연해주에서 이동한 계봉우와 1916년 대전학교 폐교 이후 나자구에서 이주해 온 이동휘, 이봉우 등 북간도 민족교육의 선도자들이 운영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목표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가르쳤다.

1919년 북간도 용정에서 일어난 3·13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조선독립기성회는 북간도 한인 단체의 계보를 잇는 조직이었다. 조선독립기성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대한국민회로 개칭

하였고, 북간도 최대 한인 단체이자 행정 기구로 기능했다. 대한국민회는 하마탕에 본부를 두고 활동했으며, 자연스럽게 하마탕은 북간도의 독립운동 중심지로 떠올랐다.

하마탕은 북간도에서 한인사회와 독립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역 사례이다. 하마탕에서는 한인사회 형성과 독립운동가의 이주를 통해 성장하는 한인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북간도 최대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국민회의 본부가 설치되었으며, 나아가 교육과 사회 조직을 통해 독립전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하마탕은 연해주와 간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연해주에서 유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에서 들어온 독립군의 무기는 하마탕을 거쳐 북간도 독립군에게 전달되었다.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홍범도는 북간도로 활동 지역을 옮겨 하마탕 예수촌에 주둔하며 대한독립군을 창설했다. 대한국민회의 구춘선은 군정사후원회를 조직해 홍범도 부대를 지원하며 부대 창설을 도왔다. 또한 대한국민회는 산하 무장 단체로 대한국민회군을 설립했다. 이 두 부대는 하마탕 한인사회라는 같은 뿌리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1920년 독립전쟁의 최일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북간도에서 이룬 독립전쟁의 빛나는 승리 뒤에는 독립군을 길러낸 하마탕 한인사회와 그곳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獨立新聞》

《新韓民報》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1』, 國會圖書館, 1978.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 2』, 國會圖書館, 1978.

東洋拓植株式會社, 『間島事情』, 東洋拓植株式會社, 1918.

朝鮮總督府總務部外事局, “蛤蟆塘地方ノ地勢狀況報告”, 『淸國國境關係』, 朝鮮總督府, 1910.

朝鮮總督府總務部外事局, “羅子溝地勢狀況報告送付ノ件”, 『淸國國境關係』, 朝鮮總督府, 1910.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朝鮮總督府, 1915.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下)』,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1971.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군전투사(上)』,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1973.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의병항쟁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1971.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1976.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자료 총서』 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2. 저서

국민회군편찬위원회, 『항일국민회군』, 국민회군편찬위원회, 1974.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4권, 국사편찬위원회, 1970.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어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Ⅱ』, 探究堂, 1965.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Ⅲ: 民族主義運動 篇』, 原書房, 1967.

김정주, 『朝鮮統治史料』 2, 韓國史料研究所, 1970.

- 김주용·박환·조재곤·한시준·한철호,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2009.
-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 김호림, 『연변 100년: 역사의 비밀이 풀린다』, 글누림, 2013.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꿈속의 꿈(上)』, 독립기념관, 1997.
- 독립기념관,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 활동지와 한인사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학술조사보고서, 2021.
- 리광인, 립선옥, 『항일련군의 조선족 녀전사들』, 연변인민출판사, 2009.
-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 박환, 『만주지역 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12.
- 박환,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1991.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서평일, 『간도사신론(上)』, 우리들의 편지사, 1993.
- 장세운,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20년 독립전쟁과 사회』, 선인, 2021.

3. 논문

- 김경준, “安武(1883~1924)의 항일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92, 2017.
- 김대용, “北愚桂奉瑀(1880~1959)의 민족운동과 역사 서술”,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김동춘, “북간도 조선민족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수용과정”,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소식』81, 2008.
- 김영환, “독립군 무장기지 ‘봉오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평가 -최진동·최운산 형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54, 2022.
- 김춘선, “1880-1890년대 청조의 ‘移民實邊’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 리영일, “리동휘 성재 선생”, 『한국학연구』 5, 1993.
- 박결순, “北間島 墾民會 선행조직의 추이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51, 2009.
- 박결순, “북간도 간민회의 해산과 추이”, 『중앙학론』 30, 2009.

- 박민영, “북만주 烏雲縣의 독립운동 근거지 倍達村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 박주신, “中國의 間島 韓國人에 대한 教育政策과 韓國人의 教育的 抵抗”, 『한국교육사학』 21, 1999.
- 배정현, “만주지역 대한국민회회장 구춘선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7, 2016.
- 오천석, “대한국민회를 논함”, 『역사와 세계』 44, 2013.
- 조중원, “北間島 大韓國民會 研究”,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최봉룡, “북간도 한인자치운동의 효시: 간민회의 시말과 그 성격”, 『한민족연구』 7, 2009.
- 최홍빈, “북간도독립운동기지 연구”, 『한국사연구』 111, 2000.
- 현진국, “중국 연변지구 항일 근거지 연구”, 『학림』 37, 2016.

<Abstract>

Establishment of a Base Area for Independence in
'Hamatang'
in North Gando in the 1910s - 1920s

Kim, Jung-Hun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matang was the site where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 leading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in North Gando, was established in 1919.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y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this remote reg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in Gando an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group organized around it through a regional study of Hamatang. Chronolog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before the 1920s, while spatially, it examines the social found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articularly in Hamatang.

For a decade, Hamatang served as the center of the Korean community in North Gando. Its topographical features—a narrow entrance with an open retreat—made it an ideal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process by which the Korean community and independence activists united to establish a base serves a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bases for the North Gando independence movement were

formed. Moreover, the case of North Gando contributes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formation of the independent army.